

성결의 말씀 우리 안에 있어...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 마음을 닦아가는 만민의 성도들과 세계 곳곳에 전파되고 있는 성결의 복음.

복 있는 사람(2)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므로 만사가 형통한 축복을 받는다.

영적인 말씀 무장의 비법

아름다운 영의 마음을 이룰 능력 있는 영적 장수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말씀 무장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보호받은 송기주 집사와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새로운 삶을 찾은 스위스 유르그 쇠들러 성도 간증.

# 만민뉴스

제771호 2017년 1월 8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사형통한 축복의 길!

###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2017년 새해에도 우리 교회 각 기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마음 안에 진리를 채우기 위해 성경 읽기, 성구 암송 등으로 활기가 넘친다.

남지역장연합회와 1장로회는 전·후반기 성경 2독을, 청년선교회연합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연합회들은 성경 1독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믿음의 뿌리를 말씀 속에 깊이 내리고자 달려가고 있다.

또한 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쉽게 무장할 수 있는 방법,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 읽기도 한창이다.

여지역장, 남조장, 남구역장연합회, 에스더회 등은 매월 한 권 읽기, 가나안선교회연합회는 전·후반기 총 20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구역장총연합회는 사랑장 등 주제별로 설교 텍스트를 배부하여 말씀을 붙들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빛과소금교회는 설교 텍스트 읽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 교회는 매주 주보에 ‘금주의 성경구절’을 게재하여 하루에 한 구절 암송을 생활화해 왔다. 특히 만민의 꿈나무 학생주일학교에서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성구 암송을 생활화하며 매주 공과 시간을 이용해 성구테스트를 하고 있어



청·장년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있다.

또 2장로회, 기도제물연합회를 비롯한 각 연합회와 선교회도 자체적으로 성구 암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올해로 17회를 맞는 말씀퀴즈대회를 사모함으로 함께 준비하고 있다.

한편, 성도들은 말씀 무장을 통한 영적 성장과 더불어 영혼 구원에도 마음을 쏟고 있다. 남선교회총연합회는 잃은 양 찾

기를, 여선교회총연합회는 전도와 심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남지역장연합회에서는 전·후반기 전도 및 심방대회를, 남구역장연합회는 매주일 교구별 기도회와 성경스터디를 통해 영적 성장과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 영의 흐름 속에 2017년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히 10:22)을 이루기 위해 하나 되어 달려

가는 성도들의 즐거운 행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만사형통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관련 기사 3면).

## 성결의 복음에 은혜받아 찾아온 몰도바 청년들



동유럽 몰도바의 젊은이들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6박 7일 일정으

이 외에도 다니엘철야 기도회와 만민 기도원 집회, 청년화요찬양예배 참석과

로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사진). 이들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축복기도를 받은 후 성탄절 야예배에 참석하였고 25일에는 성탄축하예배를 드렸다.

MIS(만민국제신학교) 수강, GCN방송과 우림복 방문 등을 통해 몰도바를 비롯해 주변 나라 복음화의 비전을 키웠다. 한편, 리더 알렉산드르 타바라누 형제(사진 맨 왼쪽)는 TBN러시아 방송을 통해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은 뒤 지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변화와 생명을 체험하면서 그 수가 날로 더해져 2014년 4월부터는 함께 모여 GCN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다. 현재 70여 명의 성도가 성결의 복음을 통해 치료와 응답을 받아가고 있다.

### GCN방송 통해 세계 구석구석에 전파되는 이재록 목사 설교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전하는 GCN방송(www.gcntv.org)의 영어 프로그램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십자가의 도’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을 커버하는 오픈채널 스톡홀름 케이블 방송을 통해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방송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인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120개국을 대상으로 케이블과 위성으로 방송하는 슈버산데시TV를 통해 이재록 목사의 ‘믿음의 분량’ 설교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힌디어로 방송되고 있어 시청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2~3)

# 복 있는 사람(2)

함해 모세 오경에 기록된 하나님 법규들을 의미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와의 율법은 성경 66권 전체를 칭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각종 예배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임이라면 어디라도 즐거움으로 참석할 것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달게 받으며 영적인 깨우침을 얻을 때는 성령이 기뻐 하심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는 더 온전히 변화될 수 있으니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성경을 읽고 은혜로운 구절들을 열심히 암송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되새겨 항상 묵상함으로 자신의 마음에 온전히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늘 묵상해야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악인의 꾀는 무엇이며 죄인의 길에 서는 것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면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며 진리로 행하도록 인도하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하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4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통틀어 가장 핵심적인 계명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좇아 행하며 하나님 마음을 닦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께 속한 사랑과 선, 빛 그리고 거룩함과 진실함, 그 밖의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지요. 또한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형제를 대할 때도 온유함과 섬김으로 상대의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합니다(롬 13:10).

## 2.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므로 만사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또한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식물들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박은 나무는 가뭄이 들어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시내가 마르지 않는 한 그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계절을 따라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요.

여기서 ‘시냇가’란 축복의 근원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라 말씀한 대로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복을 받으려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지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 행함을 하나님 뜻대로 주관받아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의 단비에 젖어 있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천국 소망과 하나님 사랑으로 항상 행복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밝히 받지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무슨 열매를 맺게 될까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빛의 열매, 팔복의 열매, 사랑장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미움을 버리도록 주관하시면 순종하여 미움을 버리니 대신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또한 순종하여 헐기를 버리면 온유와 화평,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이러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 만큼 가정, 일터, 사업터에서 물질의 축복은 물론 응답의 열매도 맺힙니다. 온 세상이 가뭄으로 메달라도 시냇가의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은 물론 인근 나라에 7년 동안이나 극심한 흉년이 들어 수많은 사람이 굶어죽을 위기였지만 애굽에는 흉년과 상관없이 풍성한 식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전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요셉에게 알려 주심으로 식량을 넉넉히 예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당시에 온 애굽에 열재앙이 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지역만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현실적인 상황이 어렵고 온 세상에 재앙이 임하는 때라도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악을 버리고 성결되어 영혼이 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만큼 하나님 사랑을 받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며 천국에서도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복되며 영육 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자 악한 계교를 세우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해를 입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또한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했고,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힘 쓸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응답하시어만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율법’이란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을 포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아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아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아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아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아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 영적으로 '말씀 무장'을 하려면?

축복의 새해를 맞아 우리 교회는 '말씀 무장'의 열기로 뜨겁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한 마음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딤후 4:5),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만큼 험통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수 1:7~9).  
 '말씀 무장'의 구체적인 방법을 바로 알고 행함으로 영적 장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며 영육 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바란다.



**1단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으며 암송할 뿐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새겨야

신명기 6장 6~9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셨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함으로 늘 그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범사에 보호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뿐 아니라 마음에 명심해야 한다(잠 3:3).

사람은 변질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이 있는 만큼 들어도 잊어버리기 쉽고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으니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야 하는 것이다(히 2:1). 혹여 “나는 나이가 많아 기억력이 없으니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쉽지 않다.” 한다면 이는 핑계와 이유에 불과하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담으면 쉽게 잊어버리지만 마음에 담으면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것까지는 모르나 해도 그 내용은 정확히 기억할 수 있다. 하루 세 끼 식사하고 잠을 자며 호흡하는 것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습관을 좇아 행하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 행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따라서 마음에 깊이 새긴다는 것은 순종하여 행함으로 마음에 양식 삼고 영으로 일구는 것이다.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고 영으로 일구면 세월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성령이 즉시 떠올려 주신다.

**2단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불같이 기도해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매일 생각나고 항상 보고 싶듯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종일 묵상하게 된다(시 119:97, 148).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불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만이 죄를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먹을 때에 날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다(출 12:8~9). 어린 양은 곧 예수님, 진리 자체를 말한다.

성경 66권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거나 다른 어떤 것과 섞어서는 안 되며, 오직 기도의 불을 붙여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생명으로 삼으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이다(히 4:12).

**3단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마음을 영으로  
 온전히 일궈야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행함의 열매를 보일 때만이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다(요 6:53).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66권 말씀을 마음에 양식 삼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행함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

성경 66권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죄로 물들었던 비진리의 마음이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된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힘쓰면 성령은 선한 마음을 주관하여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받게 하신다. 진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요 14:26).

예를 들어,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상황을 만나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마 5:11~12) 말씀을 떠올려 주신다. 이 말씀이 마음에 양식되어 있다면 그 즉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것이다. 이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시험을 능히 통과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양식 삼은 사람은 성령이 주관하시면 순종하니 결코 죄를 범치 않는다. 영적으로 말씀 무장이 되어 있는 만큼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파하고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밝히 받으니 만사형통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



**2017 JANUARY**  
 2017. 1.8~ 1.14

**주요프로그램안내**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교계와 해외선교
- 사랑의 2016년 축복 6
- 십자가의 도 1-5 믿음의 분량 18-22
- 창세기 강해 60-66
- 위로부터 난 지혜 5-8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6

**GCN TV설교**

- 아버지의 섭리 1 (이수진 목사)
- 공은 마음 3 (이미경 목사)
- 마음 2 (이희선 목사)
- 믿음의 분량 7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23 (정구영 목사)
- 옴의 연단, 마음의 연단 (조수열 목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2
- 관능 스페셜 18 마지막 때 4
- 창조와 과학 17 English 7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70
- 내 마음의 찬양 24
- 모두 드려요 42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5
- 필리핀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은 길 22

**GCN HD 채널**  
**ktalleg tv 882번**

##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수 있었습니다”

송기주 집사 (73세, 2대대 19교구)

예전에 저는 만사불통한 사람이었지요. 소를 키우면 소 값이, 돼지를 키우면 돼지 값이 떨어지고 양계장마저 폭설에 무너지니 쫓돌리는 생활에 마음은 갈수록 강박해졌습니다. 늘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못된 말로 화풀이하며 괴롭혔지요.

그러던 2004년 5월, 저를 위해 전도하던 착한 큰며느리를 따라 만민중앙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으며 선하게 살아야 함을 깨닫고 일변하였지요.

술, 담배도 끊고 자상한 남편이 되었으며 주일성수와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서 일을

다시 시작해 빛도 차차 깊아갈 수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예배 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고 복막염을 치료 받는 권능도 체험하였지요.

아내 이점순 집사는 음식숙씨가 좋아 강동 지성전에서 성도들을 위해 주일마다 밥과 반찬을 준비하는 봉사자, 저는 새벽에 성도들이 본교회에 갈 때 차량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제가 2016년 12월 14일, 또 한 번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수인 저는 증축 공사장 5층 건물 바깥쪽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쌓여있던 각목 몽치(길이 3.5 m에 무게 50 kg)가 제 머리 위로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안전모는 벗겨져 떨어졌고, 쓰러지면서 제 몸의 상체가 건물 밖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임시벽을 설치하기 위해 박아놓은 철골을 급히 두 팔로 붙들었지요. 머리를 내려친 각목 몽치를 목 뒤에 얹은 채 다리는 작업판에 걸쳐져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또다시 네 몽치(총 200 kg)가 제 다리 위로 떨어져 몸

을 지탱해 주었지요. 그 힘이 없었다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져 죽었을 것입니다.

10여 분이 지나 동료들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된 뒤 병원 검사를 한 결과, 안전모를 쓰고 있던 머리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각목 몽치가 누르고 있던 목과 다리도 전혀 이상이 없었지요. 할렐루야!

평소 제 차로 함께 출근하던 동료는 예상 외로 멀쩡한 제 모습을 보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분명 죽었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사히 살아나시다니! 평소 당회장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출근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군요!” 하며 “오늘부터 한 살이시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떨어지려는 순간, 어떻게 손으로 철골을 붙들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100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온전히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늘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당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15년 만에 자전거를 타고 등산도 하다니 꿈만 같습니다!”

유르그 쇠들러 성도 (54세, 스위스)

저는 왼쪽 무릎 통증으로 인해 25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무릎 연골 수술도 받았지만 2005년부터는 관절염으로 발전해 늘 통증에 시달려야 했지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진통제를 복용했지만, 좋아하던 사이클을 비롯해 운동은 엄두도 못 내고 활동에 제약을 받으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주치의의 찾아가 검진을 다시 받으니 “무릎 상태가 아주 심각해 인공 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빨리 받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2016년 6월 7일, 저는 또다시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만민전(全)지교회 총지도교사인 이희선 목사님이 스위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과감히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고 각종 질병을 치료 받은 것을 보았기에 ‘나도 꼭 치료받고 싶다.’는 믿음과 열망이 생겼지요. 저와 아내는 사모함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2016년 6월 21일, 감사 이희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무릎에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통증이 사라짐은 물론 다리도 잘 펴 수 있게 되었고 걷는 것이 편안했지요. 할렐루야!



제 아내 굴바하르 쇠들러 성도는 2011년 11월, TBN러시아 방송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접한 후 큰 은혜를 받아 만민중앙교회 웹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당회장님 설교를 하루 10시간 정도 들었습니다. 12월 말, 한국을 방문해

만민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큰 은혜를 받았지요. 1년간 고통스럽던 허리 통증도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뒤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2012년 8월에는 저도 아내와 함께 한국 전북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열린 하계 수련회에 참석하였지요. 수많은 성도가 당회장님의 기도로 치료받았고, 성도들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사를 체험하며 아내가 왜 자꾸만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뒤 저희 부부는 전도된 10여 명의 영혼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당회장님의 설교는 은혜를 갈망하는 스위스의 영혼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지요. 2016년 5월부터는 건물을 임

대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5년 만에 자전거를 타고, 5시간 넘게 등산도 할 수 있게 되어 꿈만 같습니다. 목자의 공간 안에서 스위스를 축복하셔서 성결의 복음을 알고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광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주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양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안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경기도 인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